

막강화력 뮌헨 VS 조직력 도르트문트



뮌헨의 날카로운 창 아르엔 로번

26일 오전 3시45분
UEFA 챔스 결승전



레알과의 준결승 1차전에서 4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

사상 처음으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팀끼리 맞대결을 치는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26일(한국시간) 오전 3시45분 '영국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분데스리가 챔피언인 바이에른 뮌헨과 준우승을 차지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결승 대결로 압축되면서 말 그대로 '분데스리가 잔치'가 됐다.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독일 팀끼리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팀의 대결은 '데어 클라시커' (Der Klassiker=영어 'Classic')로 불린다.

◇독일 분데스리가 1·2위 격돌=화력에에서는 뮌헨이 도르트문트를 앞선다는 평가다. 뮌헨은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역대 분데스리가 최단 기간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총 34경기를 치르면서 29승4무1패(승점 91)를 기록한 뮌헨은 무려 98골을 터트려 경기당 평균 2.88골의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했다. 반면 실점은 18골로 막아 경기당 평균 0.53골밖에 내주지 않았다.

뮌헨은 측면날개 공격수를 활용한 선굵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정교한 패스까지 가미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Tiki-Taka)' 축구(탁구공이 왔다갔다하는 듯 패스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에 버금간다는 평

'빅이어컵' 사상 첫 분데스리가 팀 '데어 클라시커'

뮌헨 우세예상 속 도르트문트 이번 일으킬까 관심

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를 격침하고 결승에 오른 뮌헨은 2000-2001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12년 만에 우승 트로피인 '빅 이어'(Big Ear)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팀의 주요 득점원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5골을 터트린 '해결사' 마리오 만주키치와 정규리그에서 13골을 뽑아낸 토마스 린敢于 특히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득점왕(5골3도움)과 신인왕 타이틀을 한꺼번에 거머쥔 린敢于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8골을 뽑아내 팀의 결승행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에 맞서는 도르트문트는 '신흥 명장'으로 손꼽히는 위르겐 클롭 감독의 창의적인 전술과 조직력으로 뮌헨의 악성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는 뮌헨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1-1 무승부를 거둔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비록 정규리그에서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지만 경기당 평균 2.38

골(총 81골)을 기록하며 화력에서 뮌헨에게 뒤지지 않았다.

클롭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준결승에서 이번 시즌 팀킬러로 자리잡은 강력한 전방위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무력화했다. 도르트문트는 결승에서 뮌헨을 상대로 '압박-역습' 카드로 1996-199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도르트문트의 해결사 역할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맡는다. 그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24골을 터트려 득점 2위를 차지했다. 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무려 10골을 뽑았다. 다만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함께 맡아온 마리오 괴체(정규리그 10골·UEFA 챔피언스리그 2골)가 햄스터링으로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게 아쉬울 따름이다.

◇만주키치-레반도프스키 '최고 해결사는 비로 나!'=이번 결승전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골잡이들의 자존

심 싸움이다.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공격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만주키치가 정규리그에서 15골로 팀내 득점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린敢于(13골), 마리오 괴체(11골) 등이 골을 보탰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린敢于 8골로 만주키치(2골)를 앞섰지만 정규리그를 치르면서 보여준 팀내 공헌도를 따지면 만주키치가 한수 위라는 평가를 얻는다. 키가 186cm인 만주키치는 뛰어난 슈팅 능력뿐만 아니라 헤딩도 뛰어나다.

더불어 공격수수도에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역습을 차단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물고 다니면서 동태도에 독점 기회를 내주는 게 장기다.

도르트문트의 자랑은 역시 '득점기' 레반도프스키다. 정규리그에서도 24골을 뽑아낸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0골을 기록, 뮌헨과 도르트문트를 통틀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경기가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요선회 5월25~26일(일)부 설악산 귀기경정

▶5월 25일(토)
▶5월 26일(일)

</div